

수업으로 깊어지다, 삶으로 연결되다

2024 전북 수업나눔 박람회, 내달 2일 전주대 일원서

수업나눔 92개팀 · 교육학습공동체 8개팀도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1월 2일 전주대학교에서 2024 전북 수업나눔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업으로 깊어지다, 삶으로 연결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개정교육과정의 수업 중심인 ‘깊이 있는 수업’이 아이들 각자의 삶과 연계돼 의미 있는 배움이 될 수 있도록 유·초·중 및 특수교육의 모든 수업을 총망라했다.

또한 국제교류수업을 포함해 해외연수 참가 교사, 수석교사 연구회, 연구학교 참여교사, 수업혁신 지원단 및 선도교사들의 수업이 펼쳐짐으로써 함께 배우고 다채로운 사례를 나누는 교육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교사 92팀이 스타센터(중등), 자유관(초등), 진리관(유아·특수, 국제교류)에서 에듀테크 활용, 개념 기반 탐구 등 다양한 주제로 수업 나눔을 진행한다.

특히 개막식 무대에서는 전북 온라인 학교 온라인공통교육과정 수업시연을 통해 소규모학교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교육과정 지원 현장을 보여줄 예정이다.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는 교실처럼 구현된 공간에서 실제 가르치는 학생과 함께하는 ‘학생참여수업’을 참관할 수 있다. 초·중·고 4개 팀이 에듀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깊이 있게 탐구하는 모습은 현상뿐만 아니라, 전북교육청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로운 메타스쿨’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된다.

스타센터 강의실에서는 중등교원 33팀이 ‘메타버스로 우주 탐사하기’ 에듀테크를 활용한 블루월드(수자원) 지키기 프로젝트와 같은 융합 프로젝트 수업, 질문하는 교실을 선도하는 질문 기반 수업,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 학생활동 중심 탐구 수업 사례 등을 공유한다.

자유관에서는 초등교원 36팀이 개념 기반 탐구, 에듀테크 활용, 수석교사 수업 컨설팅, 학교자율시간, 주제탐구, 기초학력 등 6가지 주제로 탐구하는 교실, 생각하는 학생, 깊이있는 학습을 돕는 수업을 진행한다.

진리관에서는 ‘놀이중심 유아교육’,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 ‘세계와 소통·공존하며 미래로 나가는 국제교류’를 주제로 수업나눔이 펼쳐진다.



유호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이 30일 '2024 전북 수업나눔 박람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희망글자 올림피아드’, ‘올바른 칭찬 실천’과 같은 소통과 공감 기반 수업나눔과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도내 83개 교육학습공동체가 1년간의 연구 성과를 나누는 체험부스도 운영된다. 이를 위한 독서·글쓰기 교육, 과학 및 발명교육, IB교육, AI 교과 연구, 수업코칭, 생태환경 교육 등 다양한 체험 및 전시공간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가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에듀테크 드로잉 체험’, ‘Play the Future 전북로봇챌린지 FLL’, ‘세계시민교육 퀴즈 및 체험’ 부스 등도 준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수업나눔 박람회는 디지털전환시대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교사들에게 미래교육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행사로 의미가 크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수업혁신을 위해 교사 연수, 수업연구회, 수업공개와 나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성과공유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0일 전주비전대학교 비전컨벤션홀에서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사업 경과를 보고하고, 참여 학생들의 소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직무연수와 해외 인턴십 및 다양한 해외체험·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

올해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1기는 7월 25일부터 4주간 호주 시드니와 브리즈번에서 기계가공, 스마트팜, 원예·조경 등 7개 분야에 50명이 참여했다. 이어 2기는 8월 30일부터 6주간 조리·제과·제빵, 애견미용, 자동차 정비 등 10개 분야에서 4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에 학생들은 현지 어학교육 및 호주 국립기술전문대학(TAFE) 등에서 직무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취득하고, 또 직무별 기업체에서 2주간의 인턴십도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문형성 창의인재교육과장은 “글로벌 인턴십은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뿐만 아니라 직무교육청 등 다양한 해외연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0일 전주비전대학교 비전컨벤션홀에서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주·야간 차량 전조등·빛 반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전북교육청, 도내 초교 1학년생에 ‘교통안전 반사경’ 배부... ‘움직이는 스쿨존’ 경각심 고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초등학교 1학년 1만1,183명에게 교통안전 반사경(옐로카드)을 배부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안전 반사경(옐로카드)은 주·야간에 차량 전조등이나 빛을 반사해 어린이 보행자 발견 거리를 크게 늘려 보행 중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안전용품이다.

이는 연결고리 형태로 간편하고 활용성이 높으며, 어린이들이 친근감을 느끼도록 곰돌이, 로켓, 별, 자동차 등 4종의 캐릭터로 제작됐다.

특히 교통안전 반사경에 어린이 보행안전 포어 ‘서다·보다·걷다’를 삽입해 안전보행 의식을 높이고, ‘어린이는 움직이는 스쿨존’이라는 경각심



도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배부하게 될 교통안전 반사경.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시설 개선 △안전 승하차존 조성 △교통유관기관 및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한국시니어클럽 등과 합동 교통안전지도 실시 등을 적극 추진

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통안전 반사경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의 새 패러다임 제시

봉동초, ‘실증 수업’ 운영

봉동초등학교(교장 장남덕)가 학생 중심의 혁신적인 수업을 위한 ‘실증 수업’을 운영하며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실증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봉동초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로,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해 1학기 정서 과목을 설계, 2학기부터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실증 수업은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신장을 목표로 9월부터 10월 말까지

전북자치도교육청,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성과공유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0일 전주비전대학교 비전컨벤션홀에서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사업 경과를 보고하고, 참여 학생들의 소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직무연수와 해외 인턴십 및 다양한 해외체험·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

올해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1기는 7월 25일부터 4주간 호주 시드니와 브리즈번에서 기계가공, 스마트팜, 원예·조경 등 7개 분야에 50명이 참여했다. 이어 2기는 8월 30일부터 6주간 조리·제과·제빵, 애견미용, 자동차 정비 등 10개 분야에서 4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에 학생들은 현지 어학교육 및 호주 국립기술전문대학(TAFE) 등에서 직무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취득하고, 또 직무별 기업체에서 2주간의 인턴십도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문형성 창의인재교육과장은 “글로벌 인턴십은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뿐만 아니라 직무교육청 등 다양한 해외연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연수원,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등 대상 공개강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30일 MZ세대 공직자들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매너가 온다 : MZ세대 슬기로운 공직생활’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좌는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 220명을 대상으로 공직 생활에서 필요한 기본 소양과 공직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직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매너와 조직 안에서 상호 존중 및 배려를 실천하는 방법을 다뤘다.

민완성 원장은 “이번 강좌는 MZ세대 공직자들이 올바른 공직 생활 태도를 배우고, 그로 인해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장학재단은 지난 2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더욱 열심히 공부해 꿈 이루겠다”

전북교육장학재단, 난치병 학생에 장학금 전달

전북교육장학재단은 지난 2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장학금 수혜 학생들과 가족, 교육 관계자, 그리고 기부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총 5천만원의 장학금을 46명의 난치병 학생들에게 100만원씩이 전달됐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이 돈

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해 꿈을 이루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덕 이사장은 “전북교육장학재단은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싱가포르 ‘ITB Asia 2024’ 참가

남원 특산물 브랜드 전시

전주대학교 K-Food산업연구소는 지난 23~25일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컨벤션에서 열린 국제 관광박람회 ITB Asia 2024에 참가, 남원의 특산물 브랜드 ‘ONE FOOD(원푸드)’를 전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원푸드는 남원시와 전주대학교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혁신사업(RIS)에서 발굴된 브랜드다. 남원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백향과(패션푸드) 대량 재배에 성공한 도시로 이를 남원의 대표 농산물로 삼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ITB Asia 2024는 전 세계 132개국에서 1,250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석해 각 국가의 여행 상품과 지역 특산품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서울, 부산, 경기도, 광주, 강원 등 여러 지역이 참가해 해외 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았다. 남원시 또한 전주대학교와 함께 ‘ITB Asia 2024’에 참가했다. /장은성 기자



특히, 남원 원푸드를 대표하는 농특산물 중 하나인 백향과를 형상화한 캐릭터 ‘백향이’, 이를 활용한 게임 콘텐츠인 ‘백향GO’와 함께 남원 백향과(패션푸드)를 홍보하며 박람회를 찾은 전세계 관람객에게 이색적인 미식 관광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한식조리학과 김수인 교수는 “원푸드 브랜드를 통해 남원을 세계적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며 “그 중심에 전주대가 함께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2024년 지식재산 지역간담회

일시 : 2024년 10월 29일 장소 : 전주대학교 자유관 405호 주최/주관 : 전주대학교 지식재산센터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는 지난 29일 자유관에서 ‘2024 지식재산 지역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전주대 로컬벤처학부, 지식재산 지역간담회 개최

도민 20여명 참석... 도내 창업·지식재산 현안 발표·토론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는 지난 29일 자유관에서 ‘2024 지식재산 지역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도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지역의 창업과 지식재산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는 지역 기반의 창업과 지식재산(김시영 교수,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 전북의 창업 현황과 지식재산의 활용 문제(심영보 본부장, 로우파트너스) 순으로 이뤄졌다.

이후 지식재산 기반의 전북 산업 발전 방안 정책 수요에 대한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김시영 교수

(로컬벤처학부)는 “지금은 우리 지역 산업 전반에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 지역의 성장을 위한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로컬벤처학부는 로컬 자원 기반의 창업 및 경영 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로컬비즈니스전문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